

“마음 속 작품 열정 펼쳐 학생들 감성 깨우고파”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84학번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84학번 동문들
졸업 30주년 ‘생활 속에서 만나다’전

오늘~13일 은암미술관 20여명 참여
“동문전 해마다 개최해 소통의 계기로”

“벌써 졸업한지 30년이 됐네요. 미술교사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작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멋진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들었던 미술 수업은 평생 추억으로 남는다. 처음 붓을 잡아본 학생도 선생님이 몇 번 붓질을 도와주면 썩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기억속 미술선생님은 언제나 멋진 모습이었다.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미술교사들로 구성된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84학번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아 붓을 들었다. 은암미술관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생활 속에서 만나다’전을 연다.

동아리 ‘한동아리’ 결성 30주년 기념전을 겸한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는 동문 20여명이 참여한다. 교사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과 학생들이 희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윤정규 작 '기원'

표현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5일 은암미술관에서 만난 윤정규(54·광주중) 교사는 “그동안 동문들이 워크숍·소모임 전시를 하긴 했지만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기승 속에 간직한 작가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다”고 소개했다.

전시 주제(생활 속에서 만나다)는 교사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았다. 큰 아픔을 겪던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함께 했던 자연, 혼란스러운 현 시대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눈에 띈다.

한쪽 벽면에는 한국 숯대작가협회원으로 활동 중인

윤 교사가 출품한 숯대작품 ‘상념’을 설치했다. 진도 팽목항에 숯대작품을 설치하기도 했던 윤씨는 세월호 학생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광주예고에 재직 중인 이선복 교사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는 동양화 ‘석양’을 출품했다. 또 조영길(지산중) 교사는 눈이 소복히 쌓인 들판을 소재로 한 유화 ‘설경’을, 김은숙(서울공고) 교사는 연꽃 한지로 연꽃을 표현한 ‘어떤 그리움’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그밖에 먼저 세상을 떠난 동문의 유작도 함께 배치해 고인을 기린다.

이날 교사들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교사·학생간 관계와 소외받고 있는 미술교육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조영길 교사는 “30년 전 첫 발령 때 1개 반에 60명이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30여명으로 줄었다”며 “갈수록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정도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들은 입시에 도움되지 않는 미술수업은 그저 노는 시간으로만 있는데 학생들이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다”고 설명했다.

이선복 교사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동문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선생님 모습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사제간 정을 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7 목요일국악한마당 개막 공연

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흥겨운 국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 서구(청장 임우진)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017년 ‘목요일국악한마당’ 공연을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목요일국악한마당은 광주의 대표적인 국악 상설 프로그램으로 매년 40여회의 공연에, 매회 120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인기 공연이다. 올해 무대는 2월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모두 40차례 열린다.

올해 상설 무대 개막 공연은 ‘하늘땅 두드림’이 맡았다. ‘하늘 땅 두드림’은 이날 공연에서 ‘지신밧기’, ‘잔치상’ 등을 선보인다. 또 ‘소원풀이 난타’는 2017년 새해의 활기찬 출발과 모든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평안, 개막공연이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무대다.



‘하늘 땅 두드림’ 공연 모습.

2월에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무대는 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인 김성훈 초청 아쟁 연주회(16일)와 사)풍류회 ‘죽선방’ 초청 풍류음악 공연(23일)이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2층, 지상3층)규모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악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전석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그 밝은 희망으로’

10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새해를 맞아 가곡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가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에서 제95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그 밝은 희망으로’다. 저항시 ‘겨울공화국’으로 유명한 양성우 시인의 ‘희망으로’에 한지영 작곡가가 곡을 붙인 가곡 ‘희망으로’를 함께 부른다.

‘추억의 노래’로는 풍요 ‘낮에 나온 반달’, 가곡 ‘장안사’ 등이, 정다운 노래로는 ‘꿈’ 등이, 사랑의 노래로 ‘내 맘의 강물’ 등이 선정됐다.

이번 꿈나무 연주에는 최봄(금부초 3)·소희서(불로초 3) 학생이, 회원 연주에는 김선희·오병근·정혜경·민병덕씨가 참여



한다. 또 여성중창단 ‘꿈오라기’가 ‘그날’을, 테너 김태연씨가 특별출연해 ‘떠나가는 배’를 연주한다.

그밖에 바리톤 석상근(사진)씨가 ‘동막골 이야기’, ‘경기도 아리랑’을 선사한다. 이태리 피에트로 마스카니 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석씨는 비오티 국제 성악콩쿠르 등에 1위 입상하고 독일 뮌스터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차와 떡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600-7135, 010-2665-23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학 교수들이 읽은 ‘올해의 문제소설’

대학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지난해 어떤 소설을 인상적으로 읽었을까. 한국현대소설학회(2015년 겨울부터 1년 동안 문예지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 발표된 중·단편 소설 가운데 12편을 ‘2017 올해의 문제소설’(푸른사상 간)로 선정해 단행본으로 펴냈다.

교수들이 추천한 우수작은 ▲박미정 ‘행

복의 과학’ ▲백수린 ‘고요한 시간’ ▲윤고은 ‘된장이 된’ ▲윤이형 ‘이웃의 선한 사람’ ▲이장욱 ‘낙천성 연습’ ▲정미경 ‘새벽까지 희미하게’ ▲정용준 ‘선물 산책’ ▲천희란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영 ‘원자오, 원자오’ ▲하명희 ‘불편한 온도’ ▲홍영진 ‘마순희’ 등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서양화과 학생들 다른 시선으로 세상보기

7~19일 양림미술관 ‘내-보다’

미술대학 재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재기발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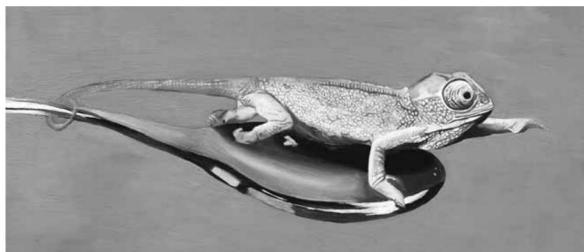
전남대 서양화과 재학생들이 7일부터 19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내-보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부연, 권유진, 김기영, 김민재, 김서현, 송미경, 이인혜, 이정은, 이지연, 임수빈, 최효영, 장원 등 13명이 참여해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 ‘내-보다’는 학교라는 공동 작업실에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한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내보인다는 뜻이다.

강부연 학생이 출품한 ‘짐 선 헤르메스’는 불뿔이 만연한 우리사회를 꼬집고 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뭉쳐 헤르메스가 되는 과정을 통해 소통, 문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결연을 담았다.

이정은 학생의 ‘퇴화’는 정장을 입은 닭이 등장한다. 발달된 문명 안에 살고



장원 작 '술가닥'

있지만 반복적인 일상을 되풀이 하는 현대인들을 모이려 쫓는 닭으로 비유했다. 학생들은 작가 노트를 작품과 함께 배치

해 작품 이해를 돕는다. 오픈식은 7일 오후 4시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적극 추천 →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평수 15평 보 500만 월 40만

◆ 평수 12평 보 500만 월 35만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62-511-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동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건물) 토 17평, 건 250평 금남로 47면, 57기역 1분 8차선 도로 접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